

손으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보편적 정보 접근을 꿈꾸며 / 김병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 소장)

테마기획

1년 남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인 터 뷰

국내 창단된 첫 장애인역도 직장운동부, 클라렌 시각장애인 역도팀!

포 커 스

보기만 하는 전시는 NO! 이제는 손으로 만져보세요!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에어컨

04 | 시선집중

▶ 보편적 정보 접근을 꿈꾸며

김병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 소장)

06 | 테마기획

▶ 1년 남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괜찮은걸까?

08 | 인터뷰

▶ 국내 창단된 첫 장애인역도 직장운동부, 클라렌 시각장애인 역도팀!

10 | 포커스

▶ 보기만 하는 전시는 NO! 이제는 손으로 만져보세요!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장애'라는 것

박관찬(시각 1급_경상북도 포항시)

13 | 월드 리포트

▶ 시각장애인 딸 둔 엄마, 대학 졸업식에서 명예 학위 받아

▶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 목숨 구한 청년 3인방을 찾습니다!

14 | 뉴스앨범

▶ 센시 컨버터로 시각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높여요!

▶ 오디오북으로 소리를 나눠요!

▶ 2018 시각장애청년 희망캠프, 가평으로 떠나요!

▶ 수상스키로 더위를 날려요!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때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에어컨이 필수인데요.

에어컨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에어컨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점 자 일 랑 표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쓰받침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문 장 부 호	!	?	.	,	-	~(—)	*	“ ”	‘ ’	/					
영 어	영어시작	끝	대문자	a	b	c	d	e	f	g	h	i	j	k	l
영 어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아포스트로피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다음에 약자 영 ㅍ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보편적 정보 접근을 꿈꾸며

김병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웹접근성평가센터 소장)

"시리~ 오늘 뉴스 읽어줘" 누구냐고요?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 이름인 것을 많은 분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한 스피커는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 파고들어 그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치 비누가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으나 목욕탕에서 기능성 강화를 갖춘 샴푸와 린스가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우리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할 만큼 생활 밀착형의 물건이라는 것에는 쉽게 동의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당장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가정하고 인공지능 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원하는 물건의 형태, 색상, 재질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받을 수 없고 설명 어렵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하더라도 결제단계에서 막혀 도저히 음성인식을 통한 쇼핑은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천에는 웹 접근성의 보편화라는 절대적 명제를 무시한 많은 웹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마치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진 접근성의 문제가 이제는 인공지능 스피커들의 무한한 활용성에 대한 확장성을 막고 있는 것이다.

"세계 소비자가전 시장의 음성인식 기술 - 시장분석/전망/조사 보고서 2017. 6. 28"에 따르면 2021년까지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의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 28% 이상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은 스피커뿐만 아닌 스마트폰을 비롯한 생활가전 웨어러블 장비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성은 장래의 우리 생활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할 것이다.

음성인식 기술 소프트웨어 기반의 하드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우리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시계, 게임콘솔, 스마트 TV 등 전자제품기기와 음성기술의 연동성을 주요 경쟁력



Finance

"Gangnam Do!" is a cute bear representing K-Star Road in Gangnam, Seoul, the birthplace of many Korean wave stars with all the famous entertainment agencies.

Sale

"Gangnam Do!" is a cute bear representing K-Star Road in Gangnam, Seoul, the birthplace of many Korean wave stars with all the famous entertainment agencies.

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은 새로운 변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관심 분야일 것이다.

최근에는 시가 사물을 인식해서 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적 욕구를 인식하여 만족할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까지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기에 웹을 비롯한 모바일 기반의 정보들을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음성인식 기술을 진보시킬 수 있는 일이며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의 접근성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정한 복지의 패러다임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행복 공감 보편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첨단 4차 혁명의 물결 속에서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수정 발전시켜 보편적 행복추구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발전과 도약은 물론 진정한 사회 통합의 복지는 요원할 것이다.

정보는 곧 힘이며, 능력인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그 정보의 습득 활용에 커다란 제약을 받는다면 동등한 경쟁사회를 살아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접근성의 차별화는 생존의 문제에 까지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의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의 투쟁적 정신과 소수의 약자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가의 주도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 총체적 발전 방향과 당연한 권리를 되찾고자하는 노력들이 이루어 질 때 웹 접근성을 넘어 모바일 접근성 생활 가전에 이르기까지 시각장애로 인한 차별지대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진정한 시기반의 생활 편의형 홈 네트워킹 시대의 완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잘 되지 않는 웹에서 악전고투(惡戰苦鬪)하며 원하는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는 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사회로부터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받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선진복지는 요원한 것이기에 당사자 주의적 참여 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1년 남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대로 관철은걸까?

장애등급제 폐지까지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시행을 1년 앞둔 지금,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장애등급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장애등급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의 종류에 따라
1~6급으로 장애의 등급을 판정받는 것입니다.

장애등급에서는 단계가 낮을수록 중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장애등급제를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
습니다. 이번 장애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관련 혜택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함인데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이라는 단어도 ‘장애
정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달라지는 장애등급제, 모든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일까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 시각장애인들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판정하는 종합판정표 때문인데요. 이
종합판정표가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있기때문
입니다. 이러한 판정표의 문제는 장애등급을 대신할 장애인 일상생활 수행능력,
육구,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과정인 종합조사도구 등
등급제폐지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서 시각장애

인 당사자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급여 시간 등이 감소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이처럼 시각장애인들의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제 폐지가 불과 1년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 조사도구 모의 적용을 위한 3차례의 시범사업에서는 타 장애유형의 평균 서비스 급여는 증가한 반면, 시각장애인은 대략 서비스 시간 9.12시간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중 완성되는 종합판정표를 통해 내년 7월에 우선적으로 활동 지원, 보조 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등급을 없애고 종합판정표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 지원 서비스 등 단계적으로 종합판정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상 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내년 7월까지 1년 남짓 남았는데요.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각장애인들이 기존에 받았던 혜택이 얼마나 보장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창단된 첫 장애인역도 직장운동부, 클라렌 시각장애인 역도팀!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는 스포츠, 역도
렌즈 회사 (주)인터로조에서 국내 첫 시각장애인 역도 실업팀을 창단하였습니다!

Q. 안녕하세요. 먼저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라렌 시각장애인 역도팀입니다. 팀원은 권태윤 감독님, 김유협(29, 시각장애 1급) 선수, 박한별(31, 시각장애 3급) 선수 모두 3명으로 주식회사 인터로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시각장애인 역도가 비장애인 역도와 다른 점이 있나요? 다른 점이 있다면

A. 무엇일까요?

올림픽이나 장미란 선수 등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도는 인상과 용상이 있지만 시각장애인 역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선수들은 성별, 나이, 체중에 따라 분류되어 경기에 참가하게 되고 모든 선수는 각 리프트 마다 3번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3번 중 최고 점수가 선수의 전체 총점에 합산되어 평가되고 합산된 총점을 바탕으로 나이와 체급을 반영하여 우승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Q. 네. 그렇다면 이제 선수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협 선수와 박한별 선수는

A. 어떻게 역도를 처음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유협: 저는 2014년 인천 해광학교를 들어가면서 지인의 소개로 역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역도는 생활체육으로 하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던 차에 인천 장애인체육회 쪽의 추천으로 본격 역도 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박한별: 저는 원래 조정 선수였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헬스 트레이너나 보디빌더 쪽으로 활동을 함께 해왔었고, 스포츠연맹의 부회장님 추천으로 역도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Q. 훈련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A. 기존에는 각각 따로 훈련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스케줄에 맞추어 훈련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소속 팀이 있다보니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훈련은 주 5일, 8시간 정도씩 진행이 되며, 오전에는 근력과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을 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등 역도의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역도가 무거운 것을 들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 이다 보니, 훈련이 많이

A.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힘든 훈련 과정을 극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유협: 저 같은 경우에는 클라렌 역도팀에 소속되기 전, 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왔던 터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맞춰 훈련하는 것이 조금 힘들 때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하는 것보단 차근 차근 훈련량을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중간 중간 음악 감상 등 휴식을 취하면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별: 저는 힘든 훈련을 하고 나서 가지는 휴식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요. 특히 먹는 것을 좋아해 지역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나면 든든한 에너지가 충전되어 또 훈련할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Q. 감독님께 여쭙보고 싶습니다. 이번 클라렌 시각장애인 역도팀 창단이 국내 시각장애인

A. 스포츠 전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각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운동선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인데요. 장애의 특성 상 제약이 있다는 생각에 운동을 쉽게 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 역도의 경우는 사람들이 흔히 헬스장에서 많이 하는 운동인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자세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역도라는 종목의 생소함과 운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작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저희 역도팀 창단이 외부에 알려지면 많은 시각장애인 당사자 분들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Q. 역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A. 역도는 활동량이 부족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몸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전신운동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서로 격려를 통해 자신의 신체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성취감도 있는 운동이죠.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중심 코어를 다지는 데도 매우 좋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클라렌 시각장애인 역도팀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저희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스포츠 팀이기 때문에 가장 1차적인 목표는 국내·외의 한정적인 장애인 역도 경기 및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시각 장애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저희 역도팀을 보고 건강 관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함께 운동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하는 전시는 NO! 이제는 손으로 만져보세요!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손으로 읽는 전시회 - 골목부산’을 소개합니다.

지난 8월 2일부터 8월 8일까지 일주일 동안 부산 진구의 양정상가 지하 1층 비밀기지에서는 ‘손으로 읽는 전시회-골목부산’이 열렸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시각장애인 작가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입체 그림으로 만들어 전시한 것인데요. 이 그림은 시각장애인 작가 12명이 지난 5월 12일 활동보조인, 배리어프리 화면해설작가와 함께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을 투어하고 그 느낌을 그린 것입니다.

전시의 기획은 배리어프리 문화예술단체인 ‘꿈꾸는 베프’가 맡았는데요. ‘꿈꾸는

베프'는 시각장애 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등 화면해설 작가 모임으로 결성되어 현재는 배리어프리 문화예술단체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입니다.

골목부산은 손으로 만지며 전시를 느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체험 역시 해볼 수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한 작품 화면해설본이 준비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여가생활 바둑, 큐브, 오델로 등을 안대를 쓴 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전시 관람 후 전시에 참여한 시각장애인 작가들에게 방명록을 남길 수 있는데 점필, 점자지 등 다양한 촉각재료를 통해 나만의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좋은 반응을 얻어 2차 전시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시민갤러리 3층 배움마당 앞 복도에서 진행되는 2차

전시는 8월 10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더운 여름, 감천문화마을을 손으로 읽으며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애’라는 것

박관찬(시각 1급_경상북도 포항시)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마트폰의 터치 한 번으로 전 세계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전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 내에서 더 좋은, 더 유용한, 더 편한 기종의 개발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소식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편해지고 발전할수록 반대급부(필자 기준에서의 표현이지만)로 참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꼭 이러한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편리한 환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백퍼센트 부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니다. 그러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한 유형이 바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장애’라는 것은 정녕 어떤 것일까?

장애를 가진 당사자이며, 장애관련 업무는 물론,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까지 해본 본인조차도, ‘장애’라는 것은 그저 ‘다름’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되는 것일까? 그렇게 정의하기에는 무언가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 어떠한 부수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이유가 있다면 한 번에 단도직입적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 장애 인권 강사 양성교육에서 한 어느 교수님의 강연이 기억에 남는다.

강사 스킬을 평가하는 시간에 어떤 강사분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교수님께서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라고 수정하셨던 것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나도 너도 누구할거 없이. 그런데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받아들이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뿐이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잠재성을 전제로 한다. 즉 끝없이 발전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 ‘무슨 일’ 중에 교통사고로 또는 어떤 병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어도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고, 강의의 주 대상이었던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기존에 하고 있던 생각과 비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민이 생기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은 살아가면서 신체적 기능은 점점 퇴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체기능의 퇴화로 장애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생각과 주장은 그에 대한 반론도 따르기 마련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와 ‘된다’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필자조차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못했다. 냉정하게 칼같이 파고든다면 위 두 문장에 대해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더라도 장애를 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의 명백한 반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 역시 받아들이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절히 선택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하면서 느낀 게 있다.

단어의 올바른 선택이다. 법학을 전공하면서 단어선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지만, ‘장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장애에 대한 ‘다름’과 ‘틀림’의 인식이 다르고,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와 ‘된다’의 차이가 다른 것처럼 말이다.

요즘 특수학교 설립과 아파트에 장애인의 입주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전 각 학교마다 장애인식개선이나 장애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의무화되었으면 한다. 아직도 장애라는 것을 혐오나 불길한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라는 말과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장애인식에 대한 효과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각장애인 딸 둔 엄마, 대학 졸업식에서 명예 학위 받아

지난 7월 13일, 시각장애가 있는 딸의 대학교 졸업식에서 같이 학위를 받은 엄마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터키에 사는 하와 씨인데요. 하와 씨는 터키 사카리아 대학교 법대생인 22살 딸 베루 씨의 졸업식에 참가했습니다.

베루 씨가 학위장을 받기 위해 연단에 나설 때 함께 따라간 하와 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교수 마흐무트 빌렌 씨가 하와 씨에게도 학위장을 건넨 것입니다.

마흐무트 씨는 “지난 4년 동안 하와 씨는 앞을 볼 수 없는 딸을 대신해 매일 강의 노트와 법전을 읽어주었다”며 “하와 씨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예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하와 씨에게 경외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 목숨 구한 청년 3인방을 찾습니다!

캐나다에서 청년 3인방의 훈훈한 선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청년 승객 3명이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을 구했는데요. 토론토 브로드뷰 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각장애인은 실수로 발을 헛디뎠다 선로에 떨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남성은 두려움으로 인해 선불리 움직이지 못한 채 공포에 질린 작은 소리로 울먹이며 ‘도와달라’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고, 지나가던 청년 카일 버스킨(24)이 이를 발견했습니다.

버스킨은 선로에 떨어진 시각장애인을 발견하자마자 재빠르게 선로 아래로 내려가 그를 구조했으며, 그를 들어 승강장으로 옮기는 작업에는 당시 승강장에 있던 또 다른 청년 2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구조 현장을 담은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버스킨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나머지 2명의 인적사항은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현지에서는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남은 2명의 청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NEWS

센시 컨버터로 시각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성을 높여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주)넥스트이노베이션이 지난 7월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편의성 증진과 콘텐츠의 접근이 어려운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손쉬운 대체콘텐츠에 접근이 용이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변환소프트웨어 센시(SENSEE) 컨버터를 7월 19일부터 국내 최초로 모든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요. 센시 컨버터는 PDF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시각장애인용 텍스트 파일과 점자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며,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추출하고, 실시간 점자변환기술을 활용 하여 점자데이터로 변환, 한국어를 비롯 영어, 스페인어 등 전 세계 언어에 대한 점자코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넥스트이노베이션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업무협약이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취약한 정보접근성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디오북으로 소리를 나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7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코마루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시즌4 '마음으로 듣는 소리' 출판기념회'를 열고 오디오북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캠코 문창용 사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을 비롯해 목소리 재능기부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지식·문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목소리를 통해 경제·인문 지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한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번에 출판되는 65권을 포함해 지금까지 경제·법률 도서를 비롯한 위인전, 과학만화까지 다양한 장르의 도서 총 265권을 출판했습니다.

앞으로도 캠코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2018 시각장애청년 희망캠프, 가평으로 떠나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018년 시각장애청년 희망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 20일 1박 2일 동안 가평군 교원비전센터에서 진행된 본 캠프는 시각장애 청년들의 대면 및 소통 등을 통해 시각장애복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는데요.

캠프에 참가한 전국의 20대, 30대 시각장애 청년들은 시각장애인의 공직생활, DISC조사를 통한 성향 파악, 시각장애청년의 교육, 직무, 자립에 관한 당면 과제 및 미래비전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으며, 이후 북한강에서 수상레포츠를 즐겼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시각장애 청년들이 시각장애복지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시각장애인 간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상스키로 더위를 날려요!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주최로 수상스키 및 웨이크보드 교실이 열렸습니다. 10명의 참가자와 5명의 자원봉사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초보자와 중급자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지상에서 충분한 연습 후, 물에서 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외에도 땅콩보트와 마블 등 물놀이 레저 체험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지친 일상의 기억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때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난처한 경우가 지하철과 달리 정류장에 멈추는 버스의 번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정류장에 서있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몇 번 버스를 타십니까?”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함께 기다려 버스타승을 도와주세요.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 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 로 번 호 7608162

계 좌 번 호 우리은행 1006-601-227253 신한은행100-030-501953

예 금 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